

도 내년 국비 6조 3,028억원 ‘사상 최대’

올림픽 SOC 사업비 증가 원인 오색삭도·동서고속철은 미반영

도가 내년도 국비 6조3,02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 6조2,700억원보다 328억원이 증액된 액수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6조715억원 대비 2,313억원(3.8%)이 늘어 정부 세출예산 증가율(3%)을 상회했다.

올림픽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 등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원주~강릉 철도 1조1,727억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6,169억원 등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항목별로는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이 3조2,6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철도가 2조1,20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속도로 6,477억원, 국도 4,000억원, 국지도 242억원, 국가·지방항만 관련 718억원이 반영됐다. 또 동계올림픽예산 3,956억원, 폐광지역 및 관광개발 306억원이 편성됐다.

기타 현안사업으로는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 89억원,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 62억원,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 53억원, 양양 오색지구 집단시설지구 정비 17억원이 통과됐다.도가 중점 추진했던 문화올림픽 예산은 70억원이 반영된 반면 설악산 오색로프웨이와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동서고속철 ‘춘천~속초’ → ‘서울~속초’ 명칭 변경

도가 속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명칭을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로 바꾸기로 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도가 요구하고 있는 수요 확충 방안의 반영을 위한 전략적 차원이다.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은 3일 기자

실에서 내년도 사업 설명회를 갖고 “앞으로는 춘천~속초가 아닌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로 부르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춘천~속초 노선은 국가 철도망의 동서축인 서울~속초 노선에서 단절 구간인 미싱링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현기자 sunny@

삼척시 내년 소규모 공사발주 늘린다

예산 전용으로 재정난 ... 공사 사업비 20억 미만 그쳐 시 “신규사업 추진 부담 불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삼척】일부 예산전용과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의 이유로 재정난을 겪는 삼척시의 내년도 살림살이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막바지 공정인 LNG인수기지과 종합발전단지 등 국책사업 건설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 업체들은 내년도 삼척시의 사업발주 규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선 6기 삼척시는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411억원의 예산을 상환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원덕읍 지역에 국한돼 쓰도록 한 LNG인수기지 가스공사 기부금 290억원을, 2013년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 및 시가지 지중화사업, 삼척고 이전 진입도로 등 일반 사업비로 집행하면서 지

난해와 올해 가스배관망 구축 및 소득사업비로 281억원을 상환했지만, 아직 9억원을 더 되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또 시는 2013년 정부로부터 원전건설 특별지원금 130억원을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사업비로 편성해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및 해상로프웨이 사업비로 모두 집행을 한 상태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앞서 2012년 소규모 공사업 등 일반재원으로 전용된 도계읍 지역 영동선 철도이설 기부금 21억원도 당장 갚지 못한 채 2016년 이후에나 상환할 계획이다.

이처럼 예산전용 등으로 매년 20억원 규모로 지역 업체들에게

발주돼 온 소규모 공사 사업비가 2013년 한해만 100억원 규모로 증액됐으나, 지난해와 올해 공사발주는 기존 20억원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작된 시청-마달 간 도시계획도로와 2010년 착수된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 등 27개에 이르는 계속사업에 2013년까지 984억원이 투자됐지만, 향후 사업 마무리까지 1,907억원의 시비가 더 투자돼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체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상환하고 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소규모 공사발주를 늘리는 등 지역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내년 올림픽예산 한 푼도 증액 안돼

정부, 국비예산 편성

도 요구액 대부분 삭감 올림픽시설 준비 '비상'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대회 관련 시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혀 증액되지 않아 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는 내년으로 예정된 일부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 개최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년 사업비로 총 4262억원을 신청했다.

분야별로는 △경기장 건설 2158억원 △기존경기장 개·보수 307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947억원 △추가진입도로 7000억원 △개·폐회식장 건설 150억원등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개·폐회식장 건설 예산만 원안대로 통과됐을뿐 경기장 건설 301억원, 기존경기장 개·보수 50억

원, 진입도로 건설 160억원, 추가진입도로 20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당초 강원도 신청액보다 711억원이 줄어들었다.

문체부에서 상당액이 감액된채 기재부로 넘어갔지만 기재부는 다시 올림픽 예산에 갈을 들이냈다. 기재부는 경기장 건설 예산을 추가로 136억원이나 삭감해 1721억원으로 편성했다.

도가 당초 신청한 경기장 건설 예산보다 437억원이 줄어들었다.

기존경기장 개·보수 예산도 증액 없이 문체부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진입도로 건설 예산은 20억원을 추가로 삭감, 도의 요구액보다 184억원이 감소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도 도의 증액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장 올림픽 준비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기장 건설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절대공기 부족은 물론 예정된 테스트 이벤트 개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관련기사3면 백오인

원주~강릉 복선철 사업 신호설비 공사 이달 발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신호설비공사에 대한 발주 및 계약체결을 이달 중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호설비 공사는 총 860억원 규모로 4개 공구로 나눠 발주된다. 이달 중 각 공구별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1월 착공, 2017년 상반기 완공된다.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각 공구의 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본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을 폐지했다. 안은복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비예산 확보 현황 (단위:억원)

시설명	강원도 요구액	문체부 심의안	기재부 심의안	최종 반영액
경기장	2158	1857	1721	1721
기존경기장	307	257	257	257
진입도로	947	787	763	763
추가진입도로	700	500	500	500
개폐회식장	150	150	150	150

국토부, 내년 예산 21조9000억원

SOC 20.7조... 올보다 9917억 '↓'

〈본예산기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21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2조5000억원) 대비 5795억원 감소한 규모다.

3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부 예산은 21조9000억원이며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조7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토부 SOC 본예산 21조7000억원보다 9917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1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감소폭이 2조3000여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SOC 예산 평균(20조7000억원) 수준은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예산이 8조2803억원으로 올해보다 7365억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수자원 예산(2조1496억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1235억원이 깎였다. 지역 및 도시(7506억원)와 산업단지(6280억원) 예산도 각각 393억원과 2624억원 감소했다.

반면 철도·도시철도 예산은 7조4646억원으로 595억원 증액됐고 물류 등 기타(1조3250억원)와 항공·공항(1642억원) 예산도 각각 823억원과 282억원 늘었다.

주택·주거급여 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8000억원)보다 4122억원 증액됐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국토교통 예산은 올해보다 감액됐지만 당초 정부안(21조7000억원) 보다는 2800억원 증액됐다.

2016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현황 (국회 확정, 단위: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5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증액)	정부안	증감	최종		
합계	225,188	12,647	216,593	2,799 ▲	219,392	5,796 ▼	
SOC	소계	217,549	12,497	204,953	2,679 ▲	207,632	9,917 ▼
	도로	90,168	2,696	83,149	346 ▼	82,803	7,365 ▼
	철도·도시철도	74,051	7,527	71,828	2,818 ▲	74,646	595 ▲
	항공·공항	1,360	-	1,437	204 ▲	1,642	282 ▲
	물류 등 기타	12,436	-	13,060	199 ▲	13,259	823 ▲
	수자원	22,731	1,924	21,749	253 ▼	21,496	1,235 ▼
	지역 및 도시	7,899	-	7,429	77 ▲	7,506	393 ▼
	산업단지	8,904	350	6,301	21 ▼	6,280	2,624 ▼
사회복지	소계	7,639	150	11,640	120 ▲	11,760	4,121 ▲
	주택	2,128	150	1,351	120 ▲	1,471	657 ▼
	주거급여	5,511	-	10,289	-	10,289	4,778 ▲

도로분야 7365억원 줄고 수자원은 1235억원 감소 주택·주거급여 1.2조 증액

도로(-346억원)와 수자원(-253억원), 산업단지(-21억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가뭄대책으로 올해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건설예산 23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도 각각 190억원에서 310억원으로, 1320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예산도 늘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IC 개설

예산 35억원이 새로 책정됐고,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었다.

서해선 복선전철(1837억원→2337억원)과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50억원→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3639억원→3939억원) 등 지역사업도 증액됐다.

또 문산~도라산 전철화(10억원)와 월곡~관교 복선전철(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춰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로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강원도, 2년연속 국비 '6兆 시대' SOC예산 3조2643억 확보 최다

국회의 예산 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강원도는 2년 연속 국비 6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나 오색케이블카 등 숙원사업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예산의 국회 의결 결과, 도가 확보한 2016년도 국비는 6조3028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 (6조715억원) 대비 2313억원 (3.8%) 증액된 수치이자, 당초 정부 예산안(6조2700억원)보다 328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도 관계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 증가 및 경기장·진입도로 등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비 예산 증가로 전체적인 국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SOC 예산은 총 3조2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주~강릉(1조1727억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6169억원), 중앙선 원주~제천(1918억원),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630억원) 등 철도 관련 예산이 총 2조1206억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3263억원),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1193억원),

내년 6조3028억으로 3.8% 증가
평창 경기장 건설 등 3956억 지원
숙원사업 '오색케이블카는 무산

제2영동고속도로(2021억원) 등 고속도로 예산은 총 6477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국도 및 국지도 예산도 총 4242억원으로 확정됐다. 동해·목호항 인프라 구축(250억원), 속초항 여객선 부두 및 여객터미널 설치(239억원) 등 항만 예산은 718억원으로 결정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비는 3956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경기장 건설 및 보수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진입도로 건설에 1263억원이 투입된다. 올림픽 플라자 조성에 150억원,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사업에도 188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139억원), 레고랜드코리아 진입교량(115억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227억원),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89억원),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62억원),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53억원) 등도 각각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반면 도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102억원의 국비 확보는 무산됐다. 도 정치권은 오색케이블카 예산 반영을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지만, 지역사업에 국비를 반영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 도는 내년에 도비를 투입해 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8년 2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70억원으로 요청한 문화올림픽 관련 예산은 40% 수준인 70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사전 붐 조성 및 문화올림픽 실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여주~원주 전철사업의 기본설계 용역비 15억원은 신규 편성됐다. 이번 국회 의결에서 여주~원주를 비롯해 총 13건(199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증액은 9건(173억원), 감액은 1건(44억원)으로 나타났다. 정희훈기자 hoony@